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78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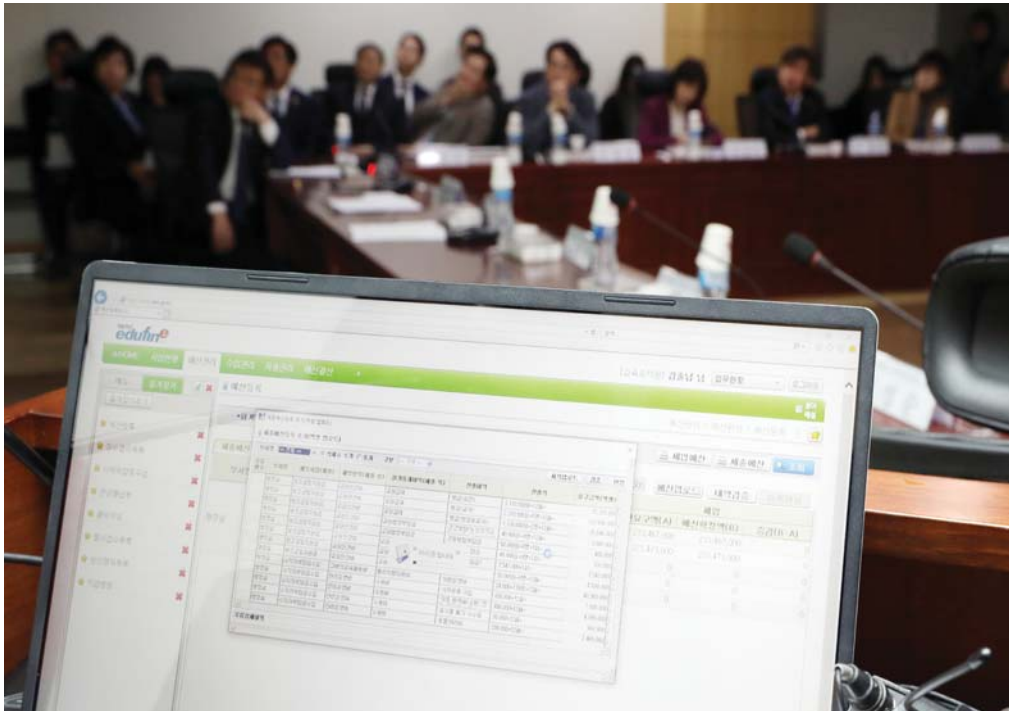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2월 27일 (음력 1월 23일) 수요일

‘에듀파인’ 도입, 광주 반토막 vs 전남 100%



3월부터 대형 사립유치원에 우선 적용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의무도입과 관련, 광주는 신청률이 반토막에 그친 반면 전남은 모두 도입키로 하는 등 지역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9면>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에듀파인이 민생기는 아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 당국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행정 처분과 형사고발은 물론 원장 기본급과 학교운영비 전액 배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불거졌던 것으로 보인다.

26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에듀파인 의무 도입 대상인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2018년 10월 정보공시 기준) 24곳 가운데

에듀파인 도입 절차를 마친 유치원은 K, M유치원 등 모두 12곳에 이른다. 전체 의무대상의 반토막 수준이다.

반면 전남은 의무 대상 6곳 모두 도입에 찬성하고 일찌감치 신청을 마무리했다.

200명 이하 비의무 대상 유치원까지 합하면 광주는 34곳, 전남은 7곳에 이른다. 휴·폐원을 제외한 전체 공·사립유치원이 광주가 159곳, 전남이 104곳인 점을 감안하면 참여율은 21.4%, 전남이 6.7%에 달한다.

경영난과 원아감소로 휴·폐원하는 유치원은 광주가 13곳(휴원 9, 폐원 4), 전남이 6곳(잠정)에 이른다.

에듀파인에는 원장 급여를 비롯해 해당 유치원의 수입과 지출, 결산 내역이 모두 기록되고 기록된 내용은 교육 당국이 실시간

광주, 의무 대상 대형 유치원 24곳 가운데 12곳만

반면 전남은 6곳 모두 도입 찬성 ‘지역별 온도차’

교육청, 거부 유치원 우선 감사-고발 등 강력 대응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과 회계부정성 향상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3월 신학기부터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에 우선적으로 의무 도입된다.

정영미 시교육청 유치원운영지원 담당사무관은 “의무, 비의무 대상을 합산하면 3월 에듀파인 도입·운영 유치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고 희망 유치원도 계속 늘고 있다”며 “도입 의무대상 유치원 중 거부 유치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참여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사립유치원은 여전히 반발기조를 이어가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이 가지는 모든 회계문제를 해결해주는 민생기는 아니다”며 “사립유치원에 걸맞는 회계시스템을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에듀파인의 경우 수익이 나면 ‘불법’이고 손해가 나면 설립자 개인재산으로 메꿔야 하는데 운영상 손해를 전면적으로 보전해주는 초·중·고와 비교하면 심각한 차별이자 사유재산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아수 변동이 워낙 커 연간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고 예산집행 시 건별로 품의를 해야해 상시 근

무인력(1~2명)이 필요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태도는 단호하다.

당장 3월1일 의무대상 사립유치원이 도입하지 않을 경우 유아교육법 제34조에 의해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특정감사를 우선 실시하고 각종 공모 사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한편 원장 기본급 보조금 월 최대 52만원과 학교운영비 전액(학교당 월 최대 40만원) 배제 등 추가 재정 패널티 방안도 검토중이다.

최악의 경우 폐원도 불가피하다. 교육부 압박에 고안 대로라면 시정명령 1차 위반 때 정원 5%, 2차 위반 때 10%, 3차 때 15%를 줄여야 하고, 정상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집 정지·운영 정지·폐원 등 행정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특히, 행정 처분, 특정감사 형사고발 등 3단계 대응에 나서는 한편 집단 휴·폐원을 강행할 경우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가 공조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황국 교육감은 최근 확대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들이 에듀파인 도입에 반발하고 있으나 공공성 강화를 멈출 순 없다”며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조인호 기자



당선을 위해서라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맞물린 태블릿PC 조작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황 후보의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 토론, 마태: 대한청학선진국의 강 권리와 좌파 정부의 4대 강보철거 소동,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서은홍 기자 · 자료사진 = 뉴시스



무등산 ‘봄의 전령’ 복수초·변산바람꽃 만개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따뜻한 날씨 영향으로 10일 가량 일찍 개화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봄을 알리는 야생화인 복수초와 변산바람꽃이 만개하기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복수초는 쌍미나리아재비과의 여러해살이풀로 산지나 숲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이른 봄 얼음을 뚫고 산에서 가장 먼저 피 얼음새꽃이라고도 불린다.

특히 복수초는 동양에서 영원한 행복

이라는 꽃말을 갖고 있다. 무등산에서는 약사암과 새인봉삼거리 인근 동적골에 복수초 군락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이달 초부터 꽃이 피기 시작했다.

변산바람꽃은 변산반도에서 처음 발견된 한국 특산 야생화로 ‘변산아가씨’로 불린다. 꽃말은 ‘덧없는 사랑’이다. 무등산에서는 군락지 일원에서 이달 중순부터 개화했다.



복수초와 변산바람꽃은 통상 2월 중순에서 3월 초에 개화한다. 지난해에 비해 따뜻한 날씨로 올해에는 개화시기가 10일 가량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김은창 자원보전



과장은 “복수초와 변산바람꽃을 시작으로 노루귀, 평야바람꽃 등 봄꽃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이라며 “무등산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달라”고 전했다. 이용규 기자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 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 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 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 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

